

2010, 그 사건 그 후 ...

① 시간강사의 죽음

'보따리 강사'의 한 맷힌 유서 불공정 대학 관행에 경종 울려

지난 5월 조선대 시간강사 서도(45)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7개월이 흘렀다. 당시 서씨는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교수 채용 대가로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 역대의 돈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겨 큰 파문이 일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이른바 '보따리 장수'라고 불리던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한국 대학사회의 '불공정'이 고스란히 담겨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이후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는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돌입해 최근 교과부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시간강사들은 다음 학기 강의를 기약할 수 없는 고용불안과 저임금, 복지혜택 제외 등 3중고에 시달려왔다. 특히 전국적으로 7만여명에 달하는 시간강사들은 대학에서 교양과목의 65% 이상을 담당하면서도 급여는 전임강사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러 대학으로부터 엄청난 차별을 받아왔다.

또 이들은 지난 1977년 교육법

개정 이후 고등교육법상 '교원'에서 제외된 뒤부터 대학에서 연구실이나 연구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서러움까지 당해야 했다. 이에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은 시간

**교과부 법 개정안 발의
교원대우 등 처우 개선
대학 사회 시각 바꿔야**

강사를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켜 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졸기자로 요구해왔다.

비록 경찰은 서씨의 유서에서 등장한 채용비리와 논문대필 의혹을 밝히지 못했지만, 사통위는 이 같은 시간강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대학 시간강사 대책 본격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린 뒤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사통위는 지난 11월 교원의 범주에서 빠져있는 시간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에 고했다. 또 최근 교과부는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대학이 시간강사 임용 시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고, 이들에 대한 투명한 임용과 대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관 또는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시간당 3만5000원으로 전임강사의 4분의 1수준인 시

간강사들의 열악한 보수를 오는 2013년까지 국·공립대부터 2분의 1까지 끌어 올리도록 했다. 또 시간

강사들이 4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중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간강사를 바라보는 대학 측의 시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들의 진정한 처우 개선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이 여전히 우세하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관계자는 "개정안 밖의 시간강사들의 처우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시간강사가 반쪽짜리 교원이 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전국이 '꽁꽁' 눈 '펄펄'

광주·전남·북 대설특보 ... 최고 15cm

15일 광주지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1도를 기록하는 등 온도가 들어 가장 추운 날로 관측된 가운데, 16일에도 광주와 전남·북 지역은 꽁꽁 얼어붙겠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16일 오전까지 광주를 비롯, 나주·담양·화순·영암·무안·목포·신안·진도·장성·화령·영광과 전주·완주·군산·의산·김제·순창·임실·정읍·고창·부안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15일 대설 예비 특보를 내렸다.

16일 예상적설량은 전남·북 서해안 5~10cm(많은 곳 15cm 이상), 광주와 전남·북 3~8cm, 전남 남해안은

1~5cm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북 서해안 5~15mm, 광주·전남·북 5mm 내외다.

광주·전남·북 지역 16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영상 5도로 예상돼 평년보다 5~6도 가량 낮겠으며, 찬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도 더욱 낮겠다. 수도관 동파와 많은 눈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붕괴, 빙판길 교통장애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강추위는 17일 오후부터 점차 풀려 주말인 18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지리산 노고단~장터목 등 국립공원 텁방로 개방

산불 발생 위험 낮아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을철 건조기에 산불을 예방하고자 출입을 통제한 지리산 등 전국 주요 국립공원의 일부 텁방로를 16일 개방한다고 15일 밝혔다.

개방 대상은 전국 국립공원 39개 텁방로(1천398km) 중 지리산 노고단~장터목 구간 등 105곳(532km)이다.

국립공원에서 인화물질을 반입하거나 담배를 피우면 1차 적발 시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에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 관계자는 "겨울철 강설 등 기상 여건을 고려할 때 산불발생 위험도가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출입을 제한한 텁방로를 개방한다"며 "자세한 통제구간을 알려면 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를 참조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대 합격 소녀 가장 이진 양 둘기 온정 줄이어

서울대 간호학과에 합격하고도 생활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한 광양중학교 이진 학생(광주일보 12월 15일 7면)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이양을 돋기 위한

독지가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15일 광양중학교에 따르면 본보 보도 직후인 이날 오전부터 이양의 가정 형편과 은행 계좌번호를 묻는 독지가의 전화에서부터 입학금이나 등

록금 지원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서울 보라매 병원과 부산 에림산업, 광양 성무전력, 광주 모 건설 회사 등이 학교 측과 이양의 지원 방안을 협의했으며, 광양 성무전력은 이 양의 졸업시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오늘 날씨

해롭 07시 34분 해진 17시 22분

달롭 13시 32분 달진 02시 23분

동장군 맹위

수도관 동파, 빙판길 교통장애 등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자



비	풍향	파고	체감지수	등파지수	뇌출증지수
서해 남부 일비다	북서~북	2.0~3.0m	주의	높음	낮음
만비다	북서~북	2.0~4.0m			
남해 서부 일비다	북서~북	2.0~3.0m			
만비다	북서~북	2.0~4.0m			

비전	비	풍향	파고	체감지수	등파지수	뇌출증지수
비전	비	풍향	파고	체감지수	등파지수	뇌출증지수
서해 남부	앞비다	서~북서	2.0~3.0m	주의	밀물	썰물
만비다	서~북서	2.0~4.0m			목포	03:00
남해 서부	앞비다	서~북서	2.0~3.0m		여수	11:26
만비다	서~북서	2.0~4.0m				23:42

◆주간날씨

날짜	날씨	최저/최고
17(금)	흐림	-3/7
18(토)	흐림	-1/10
19(일)	흐림	1/11
20(월)	흐림	3/11
21(화)	흐림	3/10
22(수)	흐림	2/9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광주지방기상청)



'초록우산 산타 원정대' 발대

'초록우산 산타 원정대'가 15일 광주광역시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야외광장에서 희망봉선을 날리고 있다. 산타 원정대는 올 겨울 5200만원을 들어 2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게 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전자 습기제거기 (Avantgarde) New Dry box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 출시



★ 기존의 습기제거 기능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UV light(자외선)을 통해

보청기의 빅테리아까지 99.9% 제거해주는 신개념 습기 제거기

★ 우리 몸은 수분으로 인해 귀 안에 항상 습기 차게 됩니다.

이런 습기와 귀자리로 인해 보청기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 보청기는 인체에 착용하는 기계입니다.

그리므로 실균처리와 청결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알기모르게 보이는 빅테리아로 인해 인체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을 이제는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로 해결하세요!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목포점 061-262-9200

스타박스 24시 사우나·찜질방

땀만 빼는 찜질방은 이제 가라!

스타박스가 광주 시민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명소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